군민행복 혁신영암 위한 첫발 내딛다

2023년 혁신 시책 보고회 개최…101개 혁신 과제 논의

혁신 종합발전 세부 실행 계획 활용 내실있는 군정 추진

영암군은 지난 24일 군청 낭산실에서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 혁신 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지역 경쟁력 향상과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 실현을 위한 행정 전반의 혁신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25개 실과소 96개 팀에서 101개의 혁신 추진과제를 발굴·보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전 실과소가 자유롭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논의된 주요 혁신과제로는 ▲찾아가는 군수 결재 시스템 ▲청년정책플랫폼 구축 ▲일자리 사업 성과분석 시스템 도입 ▲찍먹보 영암투어 ▲영암 왕인 씨름대회 개최 ▲미세먼지 안심 쉼터 설치 ▲권역별 특화작목 재배단지 육성지원 ▲영암 농특산물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배포 홍보 추진 ▲친환경 도시 목조화 사업 ▲로드킬 처리 업무 일원화 추진 ▲공사정보 제공 통합시스템 구축 ▲공공건축물 리노베이션 공작소 운영 등이 있었으며, 내부 행정시스템 개선을 통한 업무 혁신 방안부터 실과소 협업 사업, 군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발굴에 이르기까지 행정 전분야에 걸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었다.

군은 발굴된 시책들을 군정 혁신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종합발전 세부 실행계획으로 적극 활용하여 내실 있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각오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2023년을 혁신 원년의 해로 삼고 새로운 영암, 군민이 만드는 영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 기대한다. 영암군이 앞장서 지방행정 혁신을 일궈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보고회 이후 성공적 혁신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영암=조대호 기자

무안군 해빙기 일제 방역소독 시행

무안군은 지난 6일 위생 해충 구제 및 감염병 발생 요인 사전 차단과 예방을 위해 해빙기 일제방역을 시행했다.

이번 해빙기 일제 방역소독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겨울철에도 정화조, 쓰레기장 등에 모기 유충 동면 서식지가 많아짐에 따라 보건소 방역반 및 9개 읍·면 방역기동반과 자율방역단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됐다.

앞으로도 해빙기(3~4월) 동안 여름철 모기 개체수를 감소시키고 모기 등 각종 해충을 통한 감염병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모든 읍·면에 3회 이상의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진화 보건소장은 "버려진 플라스틱 통, 깨진 용기, 음료수 팩 등의 고인 물을 제거하면 모기 산란처를 없애는 효과가 있으니,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함평군,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 추진 보고회 개최

함평군이 지난 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상익 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실과소장,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 전반에 걸친 운영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나비대축제 기간 어린이날 등 연휴가 포함돼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 및 안전사고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축제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나비대축제는 친환경농업관, 나비퍼레이드, 복화술쇼 등 신규 프로그램과 풀잎 나비·곤충 만들기, 야외 나비날리기 등 가족, 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돼 있다.

또, 자연과 함께하는 동물농장 먹이주기, 미꾸라지 잡기, 보리·완두콩 그스름 체험과 전남출신 신예 작가들의 풍경전시회, 新-뺑파전 마당극 등 문화예술 행사도 다채롭게 열린다.

함평=김광춘 기자

'조선업 구인난 해소' 목포에 전남조선업도약센터 설치

국비 10억 확보…전남도·목포시·영암군 컨소시엄 공모 선정

목포시가 고용노동부 주관의 '지역 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전남조선업도약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최근 목포시는 전남도와 영암군과 함께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지역 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202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고용위기 해소와 고용회복 연착륙 지원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국비 10억원을 확보하고 전라남도조선업도약센터 운영, 조선업 구직자 발굴 지원 및 지역특화사업 운영, 조선업 신규입직자 취업정착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목포시와 전라남도와 영암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되는데, 지난 6일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서 고용노동부를 포함해 4개기관이 약정식을 개최했다.

최근 조선업은 수주물량 증가 등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2016년 고용위기 당시 대규모 인력유출 및 조선업에 대한 부적정 인식 등으로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는 고용위기 지역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고 조선업 취업을 돕는 「전남조선업도약센터」가 목포역 근처 KT빌딩 2층에 설치·운영돼 조선업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전망이다.

조선업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남조선업도약센터에서 일대일 맞춤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조선업도약센터 취업지원·연계 서비스에 참여한 후 조선업체에 취업한 근로자가 3개월 근속하면 취업정착금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센터는 또, 조선업내일채움공제(조선업 노동자 지원), 조선업일자리도약장려금(조선업 사업주 지원) 등 조선업 플러스일자리 사업에 대한 상담과 신청 접수창구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조선업도약센터(061-801-5757)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광군, 회계업무 역량강화 교육 실시

업무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통한 군 회계신뢰성 향상

영광군은 실과소 및 읍면 회계업무 업무담당자와 신규 임용 직원을 대상으로 회계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지난 6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관련 분야에 오랫동안 실무자로서 경험을 쌓아온 호남공공재정연구소 한길옥 대표를 초빙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 흐름, ▲회계 관리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 ▲주요 감사사례 등 업무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무 중심의 직무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회계업무 역량강화 교육으로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가고, 신규 직원들이 업무 적응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